

남성의학 전문의 소영석의  
술직·대답한 性

## ‘끌내주는 주사’의 뒤탈

50대 중반인 김씨는 최근 예전에 비해 다소 발기력이 저하된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못할 정도는 아니데 얼마 전 술자리에서 만난 친구가 ‘끌내주는 주사’를 소개해줘서 한 대 맞았다. 물론 약간 무섭기도 했지만 친구의 권유와 호기심 때문에 별 의심 없이 음경에 주사를 맞은 것이다.

그날 밤, 김씨는 근래 들어 가장 왕성한 부부관계를 하고 잡아들였고, 음경이 약간 멍멍했지만 새벽까지 단단하게 발기된 것을 보고 무척 좋은 주사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음경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통증까지 오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찰률로 사워하고 얼음찜질도 해봤지만 죽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통증만 심해졌다.

또 주말마다 이런 일로 병원 가는 것도 착피해 서 통증을 참으면서 걱정으로 날을 꿀딱 썼다.

다음날 아침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부리나케 병원을 찾았고 ‘음경지속발기증’이란 진단을 받았다.

정상적인 발기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음경에 혈액이 유입되면서 이뤄진다. 당연히 통증은 없고 몇 분에서 수십 분 후 자연히 소실되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음경지속발기증은 음경으로 유입된 피가 빠져나가지 못해 생기는 복적인 상태로 통증이 있고 성적인 흥분과 무관하게 수 시간에서 수일 동안 발기가 지속된다.

이 증상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성적 활동이 활발한 나이에 빈번하다. 소아에서는 혈액질환, 외상 및 약물 복용 등에 의해 2차적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 정신과 약물이나 혈압 강하제 등을 복용하는 사람에서도 일어나기도 한다.

최근에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오남용으로 인

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위해 시행되는 자가주사요법의 부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환자의 상태와 그 원인 등에 따라 그 용법과 용량이 달라진다. 발기의 정도 및 지속시간은 사용량에 비례하지만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도 증가한다. 과다 사용하면 음경지속발기증의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발기부전치료제를 정리해처럼 함부로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등의 행위는 결국은 발기부전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사 처방에 의해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어 오남용의 사례가 늘고 있다.

대개 이런 환자는 발기가 지속되는 동안 통증을 호소하며, 성행위 때도 통증을 느끼고 배뇨장

에도 동반된다. 그럼에도 이 환자들은 수치심, 부끄러움, 무지 때문에 수 시간 또는 수일 동안 참다가 병원을 찾는다.

결국 환계 상황에 도달해 병원을 찾을 땐 이미 음경조직의 손상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 음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이 심해지고 음경해면체의 부종과 섬유화가 발생하게 돼 치료가 지연되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 보통 4시간 이상 지속되면 즉시 비뇨기과 전문의의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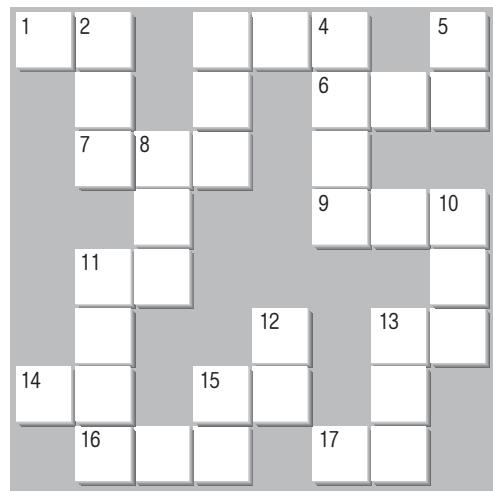
처치를 위해서는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자세히 말해 원인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발기기능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오래 방치하면 발기부전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기 할 수 있어 신속하게 치료를 요하는 비뇨기과의 응급질환 중 하나이다.

남성의 성기능 문제는 젊은이부터 노인들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항상 고민거리다.

민간요법 등 그 대처법도 다양하지만 주변사람의 이야기나 책, 인터넷 등만 믿고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는 큰 불행이 찾아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명비뇨기과 원장〉

## 함께 풀어봅시다 <318>



〈함께 풀어봅시다 317회 정답〉

▲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역을 오려 정답을 써어 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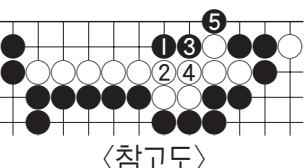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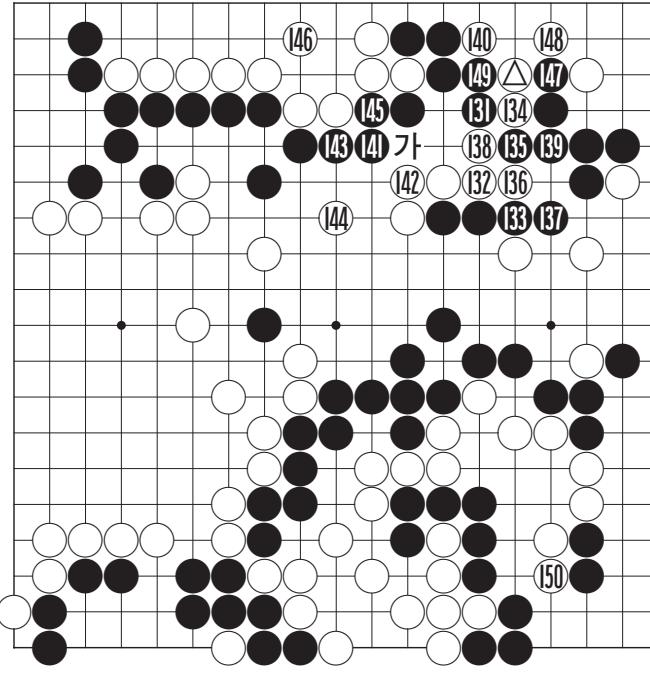
## → 가로풀이

2. 중국 삼국 시대에, 죽나라의 재상 제갈량이 출병하면서 후왕에게 적어 올린 글. 출병할 때 그 뜻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던 글. 3. 아주 오래전에 간행된 책. 4. 사장이나 형세가 걸림을 수 없을 만큼 급작스럽게 전개됨. 상황이 ~로 돌변하다. 주가 ~로 폭락했다. 5. 잘 막아 냅, 굴기피의 ~으로 우리 팀이 이겼다. 8. 제왕(帝王)의 정복(正服)에 갖추어 쓰던 관. 거죽은 검고 속은 붉으며, 위에는 긴 사각형의 판이 있고 판의 앞에는 오재(五爻)의 구슬메리를 들어뜨린 것으로, 국가의 대제(大祭) 때나 왕의 즉위 때 썼다. 10. 급히 끝. 또는 급히 방향을 바꿈. 배는 ~를 하여 앞머리를 시멘트 접안 시설에 갖다 댔다. 11. 임금의 성이 바뀌는 것은 천명이 바뀐 것이라 뜻으로 왕조가 바뀌는 일. 이성계는 ~으로 조선을 세웠다. 12. 마음에 거짓이나 꾸미기 없이 바로고 곧음. 13. 회사나 공직에서 그만 둘 뜻을 밝히고 하락을 구하는 글. 15. 일의 협회이나 깡당.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데는 꽈치 못할 ~이 있다.

## ↓ 세로풀이

### 제17회 光日盃 개인전 준결승 9보(131~150)

白 김영수 5단 黑 방재혁 5단  
(전남교사회) (창이유통)



백 ①가 하수킬러로 명성이 높은 김영수 5단이 140으로 교묘한 응수타진이다. 여차하면 귀에서 살거나 또는 삭감하는 빌미를 얻으려 한다. 방재혁 5단은 우변을 수중에 넣어서 형세가 좋아졌다고 보고 131부터 137까지 꾹꾹 참아두고 있다.

백 138로 끊어서 흡집을 남겨둔 것이 노련

한 수법이며 140으로 붙여 일단 귀에서 사는 맛이 살아났다. 흑이 141로 두었을 때 백은 즉각 ‘가’로 짊어 페를 결행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페는 위낙 큰 폐로서 모험이 따른다.

결국 144까지 백은 중앙을 연결하고 혹은 147로 페를 허는 것으로 탐합이 이루어졌다. 도중 흑 145 때 백은 146을 생략할 수 없다. 이 수를 안두면 ‘참고도’의 흑 1로 치중하는 수가 있어 대마가 잡힌다. 김영수 5단은 ‘가’로 두어 귀에서 사는 수를 남겨둔 채 150으로 노리던 우하귀를 공략한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 SIRAH 엘도라도리조트

## 굿모닝 잉글리쉬 <1141>

Where are you headed?  
지금 어디 가는 거야?

A : Where are you headed?  
B : To Tom and Mary's  
Have you even seen their house?

A : No, but I've heard a lot about it.  
B : Come on then  
They'll love to see you.

A : 지금 어디 가는 거야?  
B : 탑, 메리 집에 가고 있어.  
그 사람들 사는 집, 거쳤어?  
A : 아니, 하지만 말은 많이 들었지.  
B : 야, 그러면 가자.  
그 사람들도 너 만나는 것, 좋아할 걸

\* head : ~로 향하다

\* Have you even ~? = ~해 본 적 있어?

\* 그 사람 자동차 본적이 있어?

=Have you ever seen his car?

## 오하요우 니혼고 <1141>

きゅうりの千切(せんぎ)りを作るから手傳って。  
오이 채썰기 할 테니까 도와줘

A : お画(ひる)ご飯は何(なに)にしようかしら。  
B : 冷麵(れいめん)が食べたいな。

A : そうね、じゃ、きゅうりの千切(せんぎ)りを作るから手傳って。  
B : うん。いいよ。任(まか)せといて。

A : 점심은 무엇으로 하지?  
B : 냉면이 먹고 싶은데.  
A : 그러지. 그럼, 오이 채썰기 할 테니까 도와줘.  
B : 응. 좋아요. 맙겨 둬.

何(なに)に : 무엇으로

お画(ひる)ご飯(はん) : 점심

手傳(てつだ)う : 도와주다

## 니하오 쟁구워 <218>

下午 几点 上课?

오후에는 몇 시에 수업합니까?

A: 下午 几点 上课?

xìawǔ jǐ diǎn shàng kè

晚五 点半 上课

B: 下午 ……点半上課。

xìawǔ yǐdiǎnshànsòng shàng kè

晚五 点半上課

A: 什么时候放学?

shénme shíhòu xuéxiào

什么时候 放学

B: 四点半放学。

sìdiǎnshànsòng xuéxiào

四点半 放学

A: 오후에는 몇 시에 수업합니까?

ōzhōu è shí bài shù xuéxiào?

下午 什么时 例 次 学习

A: 每天 上课。

miāntīng shàng kè

每天 上课

B: 30分。

30fēn

30分

什么时间 放学?

shénme shíhòu xuéxiào

什么时候 放学

您 老师 教课。

先生 教课

## 한자 이야기 <858>

採薪之憂(채신지우)

칼 채, 쇠나무 신, 어조사 지, 근심 우

채신지우(採薪之憂)는 나무꾼의 우환(憂患)이라는 뜻으로, 나무꾼이 병에 걸려 나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이는 신하가 임금에게 자신의 병을 겸손하게 표현한 말인데, 오늘날은 자신의 병을 겸손하게 말할 때 사용한다.

맹자는 제나라에서 왕을 뵈려 가려고 하는데, 마침 왕이 사람을 보내 감기로 병에 걸려 바람을 쓸 수 없으니 맹자는 자신도 병이 나서 찾아뵐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다음날 맹자는 동과씨(東郭氏)를 조문(弔問)하려 외출했을 때, 왕이 맹자의 병문안을 위해 사람과 의원을 보내었다. 집에 있던 맹자는 아무 맹종자(孟仲子)는 문병 온 사람에게 “어제는 조문에 들리는 왕명(王命)이 있었으나, 나무를 할 수 없는 우환(採薪之憂)이 생겨 가지 못하였지만, 오늘은 병이 조금 나아서 서둘러 조문으로 갔습니다만, 잘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둘러썼다. (孟子, 公孫丑下)

맹종자는 형인 맹자가 왕을 뵈지 못한 것을 ‘나무를 할 수 없는 우환’, 즉 나무꾼이 병이 들어 나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로 대신한 것이다. 대수롭지 않은 병을 뜻하는 ‘미양(微恙)’도 같은 말이다.

## 리빙 센스

### 화장품 마이너스 궁합

#### ◇ 레티놀 vs 각질제거제·비타민 C

레티놀의 주기능이 주름 개선이지만, 비타민 A의 일종으로 산성을 띠고 있어 오래된 각질을 제거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따라서 각질제거제와 레티놀을 함께 사용하면 피부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다.

#### ◇ 보습 에센스 vs 퍼밍 에센스·크림

퍼밍 제품에는 피부 속 수분을 뺄아들여 배출하는 카페인이 함유된 것이 많다. 그래서 두터운 수분막 위에 퍼밍 에센스나 크림을 바르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보습 성분이 농축된 에센스나 크림의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

#### ◇ 모공 · 트러블 케어 화장품 vs 안티에이징 라인

모공과 트러블 케어 화장품은 오일 프리에 사용감이 산뜻하고 가볍지만 안티에이징 라인의 제품은 유분기 많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반된 성격의 두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면 어느 정도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 ◇ 운명의 숫자

36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나 내 것이 아니다. 48년생 자기 입을 조심하라 벌어놓은 신용이 무너질까 걱정된다. 60년생 바쁘던

일과 함께 운명해라. 84년생 특별히 건강에 유념해라.  
행운의 숫자 : 06, 28

37년생 일 거수 일 투족을 조심하라. 49년생 구설이 따르고 신체의 불편